

평범한 삶의 작지만 큰 이야기

양귀자의 「지구를 색칠하는 페인트공」

연작소설 「원미동 사람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양귀자의 이번 작품은 앞의 작품집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까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진솔한 관찰과 담담한 필체로 그려내고 있어 감동을 준다. 저자 스스로가 머리말에서 고백하듯, 소설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필이나 콩트로도 갈래구분하기가 마땅찮은 이 책을 놓고, 글의 모양새에 걸맞은 이름짓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으리라. 그냥 우리들 평범한 삶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매력에 빨려들어가 것만으로도 기쁘다.

비교적 짧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이 작품집에는 참으로 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빨간 지붕의 예쁜 집에 사는 강아지 뽀빠에서부터 매사를 너무 심각하게 분석하고 갈등하는 원미동의 어느 페인트공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시선은 세밀하고 조심스럽다. 요지경 속인 아파트 가격 때문에 벌어지는 행운과 절망의 이야기, 등보집 장수와와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 도장파는 일을 하나의 예술로 여기는 청년의 이야기, 홍선생, 이명구씨, 김만복씨, 상철이 엄마의 이야기 등 사소하고 평범한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계속된다. 이들은 작가가 살고 있는 원미동의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우리들 삶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80년대를 거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초상화인 셈이다.

또하나 이 작품에서 예사롭게 보아넘겨선 안될 점이 있다. 작가는 비록 원미동의 길가 이층집에 살며 이층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 보지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서 '소설가 선생님'으로 불리지만, 결코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다. 원미동 주민의 한사람으로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자 노력하고 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려 한다. 삶의 진솔함이 작품의 진솔함으로 꼭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양귀자의 경우는 이 가정이 맞아 들어간다. 이 작품집이 갖는 커다란 장점이자 특징은 바로 우리 이웃들의 삶, 즉 평범하고 가식없는 삶에 대한 순수한 애정인 것이다.

요즘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는 소설 중에는 현장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이 많다. 양귀자의 작품도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는 리얼리즘의 한 모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리얼리즘의 큰 약점 중의 하나가 이념을 드러내 독자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이라면, 적어도 이 작품집은 그런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작지만 큰 이야기, 목소리 낮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 속에서 진실의 밑알들이 짝터오름을 본다.

안치숙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485 주공아파트 1002-101 · 주부

소박한 언어로 보여주는 童心世界

심형건 시집 「거인들이 사는 나라」

요즘은 詩를 읽기 어려운 때이다.

굳이 한스 로버트 저서(Hans Robert Jauss)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일상의 끈에 매여 한가로운 시간을 만들지 못하는 현대인에게 詩는 생활의 1차적 목표가 아니다. 즉,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란 뜻이다. 더구나 의미의 복잡성과 낯설게 하기에 급급한 요즘 시들에서 정서적 울림을 주고, 이른바 감정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쉬운 작품을 만나기가 어렵다.

신형건의 첫시집 「거인들이 사는 나라」(진선출판사, 1990)를 말하기에 앞서 위의 전제들은 좀 아귀가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거인들이 사는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시는 그리 읽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확인과 더불어 소박한 감정적 울림을 맛보게 된다.

신형건의 시는 쉽다. 우선 신형건이 쓰고 있는 언어들은 요즘 전염병처럼 번지는 말비틀기·비뚤·뇌까림·빈정거림·意味의 多元化 따위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시의 제목만 보더라도 '초인종·욕심·거지·도리질 엄마·무작정·땀·연필·병어리 장갑·까치봄……'과 같이 어려울 게 하나 없다.

「가랑잎의 몸무게」라는 詩를 보면 “가랑잎의 몸무게를 저울에 달면 / ‘따스함’이라고 찍어진 눈금에 / 바늘이 머무를 것 같다. / 그 따스한 몸무게 아래엔 / 잠자는 풀벌레 풀벌레 풀벌레… / 꿈꾸는 풀씨 풀씨 풀씨… / 제 몸을 감아먹던 벌레까지도 / 포근히 감싸주는 / 가랑잎의 몸무게를 저울에 달면 / 이번엔 / ‘너그러움’이라고 찍어진 눈금에 / 바늘이 머무를 것 같다.”라고 되어 있다.

혹 어떤 評者は 이런 시를 보고, 사회의식이 결여돼 있고 치열한 시대정신이 부족하다고 꼬집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비치지 않는다고 해서 신형건이 만들어내고 있는 아주 소박한 세계가 의미없는 것은 아니다.

잠시 일상적인 카테고리를 벗어나 무감각한 생활의 한 부분을 떨쳐내고, 소박한 언어가 그려내는 신형건의 시세계에 빠져들다 보면 또 다른 의미를 쫓을 수 있다. 그 의미란 바로 자기도 모르는 새 슬그머니 잃어버린 童心이란까 순수랄까 하는 무엇이다.

序文 격이랄 수 있는 「얼른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들과 다시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들에게」라는 짙박한 글이 어찌면 이 시집이 지향하고 있는 세계관을 모두 담고 있다고 보아도 좋겠다.

또한 이 시집에서 어른과 아이들과의 대비는 바로 비순수 / 순수, 거인 / 소인, 욕심 / 동심, 논리적 / 감정적……이라는 도식적 비교가 그리 커다란 진리의 발견은 아닐지 몰라도, 일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끊임 없이 되묻고 싶은 질문을 대신해 주고 있다.

“거인들이 사는 나라……엔 아이들이 어떻게 살지요?”

심상우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6-3 · 회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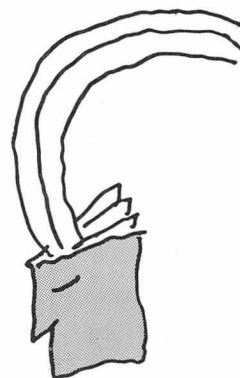
KBS 제1라디오 방송수필

“아침 무지개가
말을 할때”

양상민 외

“미세한 물방울이 맑지를 앓고 흐리면 무지개가 되지 않는다. 「아침무지개가 말을 할때」의 이 수필집은 맑은 물방울이 모여 흰색깔을 7색의 무지개로 바꾸려는 뜻들이 모인 하늘이라 하였다. 그것은 아침 무지개가 말을 한다는 것은 상처나고 어지럽고 흐린말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깨끗하고 꿈이 서리는 아름다운 말들이라 하였습니다.”

—서정범 교수 (한국수필주간) 머릿말중에서—



「人生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하는 것은 물음 앞에…… 어린 가슴엔 꿈과 낭만의 무지개로, 삶을 돌이키는 이들에겐 어린 그리움의 무지개가 되어 誠實히 삶의 진솔함을 노래한다. 달팽이·하루살이·바위·취와 등나무·술·흙·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를 들려준다. 끝내 얼굴을 숨기기를 고집한 KBS 수필문학 문인들이 特別남도 아닌 우리들의 숨결같은 생활 곳곳의 진솔한 삶을 정성스레 모아 가난한 현대인들의 가슴에 영롱한 진리의 아침 무지개로 피어 아름다운 삶의 색으로 남고자 한다.

●KBS 제1라디오 「오늘을 생각한다」에 매일밤 11:30~11:50까지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신국판/194쪽/값 3,000원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대림기획

275-5296 · 6295

죽음앞에서 할 수 있는 거짓말

제수알도 부팔리노의 「그날밤의 거짓말」

이탈리아 태생의 작가 제수알도 부팔리노의 최신작인 「그날밤의 거짓말」은 60세의 나이에 데뷔한 작가가 67세 되던 해(1988)에 발표하여 스토레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번역과 詩作에 종사했다고 하는 그의 전력은 이 작품의 풍부하고 현학적인 문체와 묘사에서도 엿보인다. 얼마전 역시 번역가로 활동했던 안정효의 작품 「하얀 전쟁」을 접했을 때, 나는 다른 작가의 작품을 또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 얼마나 많은 욕구, 즉 자신만의 글을 쓰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가를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열망이 크면 클수록 그동안 쌓여 있던 작가적 역량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힘차게 뿜어져 나온다는 것도 확인했었다.

이탈리아의 현대문학을 대할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했던 내게, 더구나 고전적 시대배경과 문체의 생소함까지 덧붙여진 이 작품이 어떤 감동을 주었다면 그것은 모든 예술영역의 영원한 주제인 인간의 내면에 대한 숙고와 탐구 때문일 것이다.

이 작품은 국왕 암살음모에 가담한 4명의 사형수들이 사형전야에 그들이 추종하는 가면 속의 인물 '현인神'의 정체를 밝히려는 유혹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사람의 배신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해낼 수 있다면, 더욱이 그 배신의 비밀이 영원하다면, 그것은 4명의 사형수 개개인에게는 자신의 생존과 동지들의 생존에 대한 놀라운 유혹, 순교자적 의무감, 더 나아가 이윤배반의 기대감까지도 포함하는 제안일 것이다.

“오늘까지는 죽음이란 말하자면 기껏해야 배우가 연기하는 역전극으로, 우뢰와 같은

박수와 인사가 있은 뒤 전원이 막 뒤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다시금 자기자신으로 돌아간다는 암묵적인 양해가 붙어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이상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 수 없고 이제 더이상 어떤 인간도 아니게 되는 바로 ‘그것’ 앞에서 삶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자정부터 새벽의 형집행까지 여섯시간동안 4명의 사형수들은 ‘단두대의 칼날이 목에 닿는 순간에 떠오를’ 인생의 한부분을 돌아가며 이야기하기로 한다. 이들의 동요와 고통은 페스트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 백가지의 이야기를 나누는 데카메론에 비견될 만하다. 이 작품의 재미는 마지막 장에서 증폭된다. 단순한 놀라움 이상의 어떤 것, 즉 다시 한번의 정독을 필요로 하는 극적 반전이 있기 때문이다.

예술작품, 특히 문학의 의의는 그 향수자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반성하도록 해준다는 데에 있다. 이 작품은 현재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일들이 인간들이 모여 사는 복잡한 사회 전체의 구조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케 한다.

안지민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민영아파트 P동 304호 · 학생

홍내의 세월, 혹은 건강한 허무주의

이상우 詩集 「나는 너의 야만스런 비밀을 알지」

90년대 우리 시의 전반적 분위기가 서정성으로의 회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되는 가운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지도 모를 허무한 자아의 음성으로 자기를 조용히 진단하고 있는 이상우의 시집 「나는 너의 야만스런 비밀을 알지」(푸른숲)는 일견 음미해 볼 만한 또 하나의 시적 성과물이 아닌가 한다.

이미 30대 중반에 이른 나이에 스스로 “문학 적 성과 別無”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이상우’라는 시인은 매우 낮설다. 어느 여고의 교사라는 이 낮은 시인의 첫 시집에는 모두 3부에 걸쳐 64편의 시가 실려 있다. 제1부 「車山里 무지개」, 제2부 「幽閉日誌」, 제3부 「홍내의 세월」 등으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삶을 어떤 의미에서든 지 깨우쳐 보려고 애쓴 생활의 편린들을 허무와 회한의 어조로 기록하고 있다.

우선 그의 시는 직업과 많은 관련이 있는데, 교단에서의 교사체험을 통해 얻은 그의 각성은 곧 절망에 가까운 자기발견으로 나타나고, 각고의 노력으로도 획득할 수 없는 자신의 이상에 대한 절규가 “살아야지, 또 살아야야지 라고 아침마다 찢긴 가슴 움켜 잡는다”와 같이 극도로 격앙되어 드러나기도 한다. 그리하여 현실에서의 탈출, 또는 떠남을 갈망하지만 대체로 그 떠남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우의 시들은 이처럼 허무와 패배의 수사들로 채워져 있다. 결국 불혹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시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사라는 직업에도 충실해야 하는 그에게 있어서는 시, 현실, 이상 모두가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없는 “마마자국 같은 인연”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시대의 대다수 민중들은 그들이 겪는 고통과 좌절에 대하여 그것을 극복할 힘보다는 묵묵히 인내할 것을 강요받는다. 이상우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렇기에 그의 시집 도처에 살아있는 허무주의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정작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그가 모든 좌절과 방황의 순간들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연작시 형태로 쓰여진 「홍내의 세월」 21편을 보면 확실해진다. ‘택시 속에서’ ‘교무실에서’ ‘자포자기의 교육 풍토’ ‘교육 민주화 운동을 바라보며’ ‘더 가지기’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엄청난 허세유지비’ ‘시라는 걸 쓴다며’ 등의 부제를 달고 사회 구석구석의 단면을 자기의 가슴으로 수렴하여 반성하거나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아물어 아물어 딱지 일어 아물쭈름 너는 또 모진 칼끝이 되어 상처를 짓이기고 만다”라고 詩를 향해 내뿜음으로써 앞으로도 시를 도외시하고 살 수 없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이상우의 과제는 수평적 서술에만 머문 듯한 첫 시집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등단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치지 않고 당당히 시집으로 얼굴을 내민 이상우 시인의 늦은 용기를 닦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의 삶이 홍내의 세월로 점철되었다 해도 혹 누군가 그의 삶을 홍내내며 살지 말란 법도 없지 않은가?

김기태

서울 영등포구 당산1가 445-1 · 서울편집학원 강사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엘리트편집인 전문양성 교육기관

관인 **한국편집디자인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73-3 (인성빌딩 2F)

'90 춘계 언론 취업반 모집요강
편집자, 기자, 레이아웃터,
교정자, 카피라이터

※ 수강예약마감 : 4월 16일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 4월 16일
수강대상 : 고졸(예정자) 이상, 전문대, 대졸

(代) 812-1715 ~ 6
취업인력 정보실 FAX. 814-3387

이삭을 줍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슬같은 그 이삭을 보배로
깨어야하는 인내도 배웠습니다.
가끔은 낮과 밤 구별없는
일과의 싸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칼날같은 업무를 하는,
그러나 자상하신 편집장 님도 만날 것입니다.
진정 활자밥을 먹겠다는,
그리하여 오직 한 길을 가고픈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을 채용해 주신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드리겠습니다.